



국립세종수목원

[반려 식물 무료 입양 프로젝트]

업사이클 가드닝

반려 식물 이름 : 호접란 (*Phalaenopsis*)

우리수목원은 계절과 시기에 맞추어 옷을 갈아입습니다.

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체된 **전시식물**이 많은 바 임무를

완수하고 앞으로 **평생을 함께할 반려인**을 기다립니다.

우리수목원에서 소중하게 키워진 식물을 반려로 입양

하신다면 **여러분은 국립세종수목원의 가족**입니다.



나비를 닮은 꽃을 피우는 식물, 호접란

'호접란'은 원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**착생란**입니다.

다육질의 잎은 관수주기가 길고 공기정화 능력이 좋으며,
꽃은 1개월 이상 **오래 유지**되어 실내 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.



호접란은 꽃의 모양이
나비가 날개를 펼치는 모양과
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.
꽃대와 꽃이 **아치형**으로
우아한 모습을 자랑합니다.

어떻게 심고 관리하나요?

'호접란'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여러해 동안 관상이 가능한 다년생 식물입니다. '호접란' 관리법,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?



열대아시아원산의 고온성난으로 주간 20~35°C, 높은 공중습도를 좋아합니다.



수태의 겉표면이 말랐을 때 저면관수법으로 관수하여 속까지 충분히 관수합니다.



반그늘에서 키워주어야 하며, 하루에 5시간 이상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.



개화한 개체는 약 2년에 1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는데 4~5월 새뿌리가 날 때 실시합니다.

무엇이 궁금하신가요?



오늘 분양 받으신 호접란(*Phalaenopsis*)에 대해
궁금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!

Q1

호접란을 흙(상토 등)에서 키우면 안되나요?

호접란은 나무에 붙어 뿌리를 노출시킨 채 뿌리껍질로 양분, 수분을 흡수하는 착생란입니다. 이 뿌리를 흙에 심을 경우, 과습한 환경에서 뿌리가 호흡 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게 되고 결국 고사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수태, 바크 등으로 뿌리 통풍이 잘 되도록 식재합니다.

Q2

호접란은 왜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난가요?

호접란은 주로 고온의 환경에 사는 식물로, 수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온도가 낮은 야간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. 호접란은 사람이 잠을 자는 야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공기 정화식물로 불립니다. 뿐만 아니라 오존,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도 함께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 실내식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

Q3

호접란의 꽃을 피우고 싶어요!

개화기가 끝난 호접란의 꽃대를 자른 뒤 창가나 베란다에서 키우면 야간 온도가 내려가는 가을에 자연스럽게 저온 처리(15~18°C, 10일 이상)를 받아 꽃눈이 분화합니다. 꽃눈 분화 이후 15°C 이하로 내려가는 11월부터 실내로 옮겨 키워줍니다. 꽃눈 분화 이후 1개월 이내에 꽃대가 보이고, 2개월이 지나면 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